

아셈 한국민간포럼 Korea People's Forum on ASEM / KOPFA

국내 연락처: 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4255 / 팩스: 723-6055 나우누리 GO PSPD

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아셈 한국민간포럼(담당 : 참여연대 장소영 723-4255)
제 목 아셈회의 민간단체 정부면담
일 자 98. 3. 24 (총 12쪽)

◆ 아셈회의 민간활동 1

보 도 자 료

1. 98년 4월 3-4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2차 아셈(ASEM:Asia-Europe Meeting)과 관련하여 민간단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오늘 3. 24일 오전 11시 아셈한국민간포럼의 대표단(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충장, 녹색연합 장원총장, 참여연대 이대훈협동처장)은 외교통상부의 아셈담당 외교정책실 권영민실장을 만나 민간-정부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셈한국민간포럼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농민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아셈을 준비하는 민간연대기구이다.

3. 아셈은 96년 3월에 방콕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1) 정치대화 증진 (2) 경제협력 강화 (3) 여타부문의 협력 증진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후속작업 중 중요하게 고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2차 아셈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과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이 작성되었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4. 아셈회의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는 아시아-유럽 민간포럼을 구성하고 아셈의 추지, 회의 의제, 구체적 행동계획에 대한 민간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그리고 한국민간단체는 한국민간포럼을 결성하였다.

5. 오늘 논의에서 한국민간포럼은 주요관심으로 아셈과정의 민주화·투명화와 경제정책이 인권·환경에 가져오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아셈의 의제에 정치, 사회조직원리(governance), 인권 사안, 환경적 지속성, 민을 위한 개발의 4대 추가 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제 확대)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중 상당수가 각국 시민사회와 일정한 대화와 참여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경시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4. 특히 이번 2차 아셈회의에서 채택 될 무역활성화계획과 투자촉진협약과 관련하여
다자간 투자협정 논의에 있어 궁극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5. <한국민간포럼의 구체적 정책제안>

민간포럼은 한국정부에게 아셈회의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제한하였다.

(1) Social Forum의 설치 제안

- Business Forum에 상용하여 회원국 노동, 복지, 환경, 여성, 농수산 부
처와 해당 분야 주요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설치하여 아셈의 정책 및 합
의사항에 대한 기획과 평가에 공동 참여.

(2) 아시아·유럽 인권교육기관의 설치 제안

- 현재 민감한 사안인 인권 의제를 중장기적인 인권교육 지원활동으로 조
정, 여기에 각국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주도를 권유.

(3)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강조

- 각국의 외국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
민단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무역·투자 정책에 대한 사회영향 평가제도 및 제도화

(5)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역·투자와 관련된 의제 채택

(6)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약 기구에서 사회적 기본권 현장 규정 추진

6. 이외에 민간대표단은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과 친환경적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무기교역의 규제 강조하
였습니다.

[별첨자료 1] 아셈에 대한 민간단체 관심과 제안